



수영 국가대표인 정두희가 5일 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SC타스마야단 수영장에서 열린 접영 50m에서 역영하고 있다. 정두희는 이날 접영 50m 예선전 24초23, 준결승 24초03를 달성, 한국신기록 2개를 연거푸 작성했다. /연합뉴스



# 초당대 정두희 수영 한국신

수영 국가대표인 정두희(초당대)가 접영 50m에서 한국신기록 2개를 연거푸 작성하며 내년 아시안게임 전망을 밝혔다.

정두희는 제25회 베오그라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세운 24초47. 정두희는 준결승에서 24초03에 터치패드를 찍으며 또 한 번 한국신기록을 작성, 하루 동안에만 한국기록을 0.44초 앞당기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정두희는 준결승에 오른 16명 중 11위를 차지해 8명이 겨루는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 하계 U대회 접영 50m서...결승 진출엔 실패 체조 금 2 추가...한국 금 11개 종합 1위 질주

한편 체조에서는 남북한이 금메달 10개 가운데 3개를 수확했다. 김수면(포스코건설)은 6일 새벽 베오그라드 페어홀1에서 열린 남자 개인 종합별 결승 마루에서 15.125점을 얻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김수면은 전날 남자개인 종합에서도 동메달을 땀다.

철봉의 김지훈(서울시청)은 15.625점을 얻어 일본 선수들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체조에서 두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여자체조 도마 금메달리스트인 북한의 홍은정은 북한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청패이(14.362)를 0.35점 차로 제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남자배구는 레바논을 세트스코어 3-0(25-17 25-15 25-16)으로 가볍게 누르고 2승2패를 기록했다.

태권도는 남자 라이트급과 남녀 헤비급 등 3개 종목에 출전했지만 메달권에 들지 못했다.

이날까지 한국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로 금메달 8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8개를 따낸 중국을 제치고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의 금메달 중 7개는 '메달밭' 태권도에서 나왔고 펜싱과 체조도 각각 2개의 금메달을 선수단에 안겼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금메달 3개로 공동 3위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

# “남아공 고지대 날씨 적응이 한국 월드컵 16강行 변수”

## 현지 답사한 허정무 감독

“공기 저항이 적어 볼의 속도가 빠르고 선수들은 체력적 피로가 빨리 온다. 고지대 환경과 심한 일교차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변수다.”

축구대표팀 사령탑인 허정무 감독은 6일 오후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0년 월드컵이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하고 현지 적응 성공 여부가 한국의 16강 진출 목표의 최대 변수라고 지적했다.

허정무 감독은 열흘여 일정으로 월드컵 베이시캠프 후보지로 지목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루스텐버그를 비롯해 프리토리아, 요하네스버그 등의 속소와 연습장 등을 점검하고 돌아왔다.

허 감독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외부적인 변수로 현지 날씨와 고지대에 있는 경기장을 꼽았다.

그는 “낮에는 햇볕이 따갑고 에어컨을 켜야 할 정도로 덥고 아침과 저녁에는 겨울을 방불케 할 정도로 쌀쌀해 일교차가 심했다. 또 건조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대한 유지하려면 현지 날씨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지대에 있는 경기장도 경기 외적인 변수로 지적했다.

월드컵 본선 경기가 치러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10개 경기장 가운데 해발 1천m를 넘는 곳이 6곳에 이른다.

특히 1천700m 고지인 요하네스버그에는 2개의 축구장이 있다. 답사에 동행



했다 김현태 코치가 이동 과정에서 코피를 흘렸고 고지대 경험이 적은 스페인과 브라질이 2009 컨페더레이션스컵(이하 컨페드컵)에서 고전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허정무 감독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 선수로 참가하고 테헤란에서는 올림픽 팀을 지휘해봤지만 고지대에선 평지보다 선수들의 피로도가 심해 순간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반면 공기 저항이 적어 공의 속도가 순간적으로 빨라 볼 컨트롤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허 감독은 이어 “내년 초 해외 전지훈련 문제는 프로축구연맹과 상의를 계속 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조 추첨으로 상대팀이 결정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찾아 국가대표팀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뛰어보는 게 중요하다”며 현지 팀과 연습경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 한국 남 배구 아르헨에 완패

한국 남자배구가 아르헨티나에 완패했다. 김호철 감독이 이끄는 남자배구대표팀은 6일(이하 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투나파크에서 열린 월드컵 B조 예선 8차전에서 상대 장신벽을 넘지 못하고 0-3(29-31 20-25 23-25)으로 졌다.

예선 전적 3승5패를 기록한 한국은 승점 9점에 머물러 B조 4팀 가운데 4위로 처졌다.

반면 승점 3점을 추가한 아르헨티나는 총 12점으로 승점 16점을 확보한 1위 세르비아(5승3패)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프랑스는 승점 11점(4승4패)으로 3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트스코어 3-0, 또는 3-1로 이기면 승점 3점을, 3-2로 이기면 2점을 준다. 2-3으로 진 팀도 승점 1점을 딸 수 있지만 한국은 이날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해 승점을 얻지 못했다. /연합뉴스

# 강동윤 생애 첫 세계대회 우승

## 후지쓰배 바둑 결승 이창호 꺾어

강동윤(20세)이 후지쓰배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생애 첫 세계대회 정상에 올랐다.

강동윤 9단은 6일 일본 도쿄 치요다구 일본기원에서 열린 제22회 후지쓰배 세계바둑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이창호 9단에게 백으로 228수만에 2집반승했다.

지난 2000년 프로 입단한 강동윤은 이로써 데뷔 9년만에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적인 기사로 입지를 다지게 됐다.

초반 흑에게 큰 집을 허용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인 강동윤은 중반에 잡힌 돌을 활용하는 사석전법으로 외곽을 두텁게 정비한 후 초읽기에 돌린 이창호를 괴롭히며 침착



하게 추격했다.

이후 중앙 백말의 절단을 노리는 이창호의 노림수를 백124수의 마늘모 묘수로 막아내 승기를 잡은 강동윤은 상대의 장기인 두터운 끝내기를 거꾸로 구사하며 승리를 이끌어냈다.

지난 4일 준결승에서 박영훈 9단을 누르고 생애 첫 세계대회 결승에 오른 강동윤은 20세의 나이답지 않은 침착한 반면운영으로 첫 세계대회 결승전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연합뉴스



7일(화)

▲대학농구연맹전 준결승 1,2 (12 : 50·SBS스포츠)

▲대봉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성남고 : 충훈고>(12 : 50·Xsports)

▲일본 프로야구 <요코하마 : 요미우리>(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 <삼삼 : 롯데>(18 : 30·MBCSPN), <LG : KIA>(18 : 10·KBSN SPORTS), <하어로즈 : 한화>(18 : 20·Xsports), <SK : 두산>(18 : 20·ETV)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내달 월드컵 유치위 창립총회

## “이영표 사우디 이적 검토중”

대한축구협회(회장 조중연)가 다음 달 중순 2022년 월드컵 유치위원회 발족을 위한 창립총회를 연다.

축구협회는 재단법인 형태의 월드컵 유치위원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8월 중순 개최해 유치위 정관을 승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치위를 이끌 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조중연 회장이 밝힌 ‘축구를 사랑하고 잘 아는 명망 있는 인사’를 위원장 후보로 정하고 최종 조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위원회는 9월 초 출범한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유치위 설립 형태를 ‘외부 독립법인’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국제축구연맹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에 알 힐랄에서 이적 조건이 와 있지만 이영표가 아직 확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직 검토 중이다”

‘초통이’ 이영표(32·토르트문트)의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명문 알 힐랄 이적설에 대해 에이전트사인 ㈜지센의 관계자는 6일 “알 힐랄에서 영입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아직 검토 단계라서 확정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알 힐랄 뿐 아니라 독일을 제외한 유럽의 3~4개 구단과 동시에 이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알 힐랄과 협상도 그런 차원 중 하나”라며 “독일 내 다른 구단으로 이적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신영안내. A large grid of small text boxes containing various news snippets, advertisements, and notices. Includes a prominent advertisement for a 100,000 won purchase promotion.